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강원도민일보	11면	두 바퀴로 경포호 달리며 환경보호 다짐	1
강원도민일보	21면	강릉 자전거 대행진 성황	2
江原日報	12면	강릉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2
江原日報		동원산업 양양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새 수장 누구... 의장 후보군 6명 물밑작업 돌입	4
강원도민일보	04면	탁구·풋살·플로깅 ... 도의회 사무처 '1인 1동호회' 활기	5
江原日報	03면	“道, 미활용 군용지 주민 피해 해결 적극 나서야”	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미활용 군용지 지원 사업 근거 조례로 명시	7
신아일보	온라인	류인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조례안...	8
이코노믹포	온라인	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 '강원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9
파이낸셜 뉴스	23면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합리적 운영 근거 마련	10
CBS	온라인	임미선 강원도의원 "세입징수 포상금제 합리화" 관련조례 ...	11
신아일보	온라인	임미선 의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12
강변일보	온라인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방안 ...	13
뉴스쉐어	온라인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	14
신한뉴스	온라인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	15
강원도민일보	21면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염원, 은륜에 실고 달렸다	16
江原日報	11면	“싸고 질 좋은 농산물 사자” 새벽 4시부터 북적	17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군자봉센터 자원봉사 릴레이 돌입 624명 참여	17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인제군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1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2024 인제군수기 대회 통합 개회식	18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화천군협회장배 탁구대회	19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양구 양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19
강원도민일보		제44회 미탄면민 체육대회 열려	20
강원종합뉴스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 개관식 개최	21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흥성기(흥천) 도의원	22
江原日報	21면	[동정] 흥성기 도의원(흥천)	22

강원도민일보	02면	군납 줄었는데 경쟁입찰까지...접경지 농가 위기감 고조	23
江原日報	01면	실업급여 지급액 月 352억 ... 코로나때보다 많다	23
강원도민일보	06면	'휘발유 1700원 돌파' 고삐 풀린 기름값에 물가 적신호	24
江原日報	05면	檢 "막을수 있었던 사고" vs "주의 의무 위반 없어" 변호인	24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대학생 아침밥 소양강쌀로 '든든하게'	25
강원도민일보	17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갯배' 운영 말한다	25
江原日報	12면	사업비 눈덩이 ... 양양 연어양식단지 난항	26
江原日報	13면	"원더풀 속초" 크루즈 관광객 매료	26
강원도민일보	20면	'야고 해트트릭' 강원FC, 인천 4-1 격파	27
江原日報	23면	춘천시장기 리틀야구대회 초대 챔프 '광명'	2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릉 급발전 의심 현장실험 주목	2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역상품권 사용자 중심 운용을	29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농가 인구 14만명 붕괴, 커지는 농촌 소멸 위기	30
江原日報	19면	[사설] 반복되는 선거구 파행, 지금이 개선할 적기다	31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11

## 두바퀴로 경포호 달리며 환경보호 다짐

## 2024 강릉 자전거대행진

권성동 의원 등 주요인사 동참  
자전거 생활화 결의문 채택도

봄을 맞아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한 '2024 강릉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20일 많은 시민,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대행진에는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김용래·박호균·최승순 도의원, 최익순·윤희주·권순민 시의원, 김화목 강릉문화원장, 마남진 한국은행 강릉본부장, 이우임 강릉여협 회장, 이호근 강릉시체육회 상임



친환경 녹색도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강릉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20일 교통택지 솔울공연장~경포호수 일원에서 시민·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회장, 김건하 강릉시자전거연맹 회장 등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강원도민일보사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의회, 강릉시체육회, 강릉시자전거연맹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

시민들은 교통택지 솔울공연장~경포호수공원을 잇는 12km 구간을 가족·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봄을 만끽했다.

참가 시민들은 행진에 앞서 김건하 강릉시자전거연맹 회장의 선창으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통해 환경보

호와 교통체증 해소,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릉경찰서 모범운전자회 강릉지회는 시민·학생들의 녹색대행진 행렬을 이끄는 안전 지킴이 역할에 맡혔고, 아트컴퍼니 해랑의 시민 취타대 공연 등으로 친환경 녹색대행진의 흥을 돋우는데 힘을 보탰다.

최동열 강원도민일보 강릉본부장은 "코로나와 대형산불 등으로 5년만에 자전거 대행진이 재개됐다"며 "새봄을 만끽하며 안전하게 경포호수의 봄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과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시장, 김기영 시의장은 "자전거를 타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 건강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재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21



**강릉 자전거 대행진 성황** 친환경 녹색도시 발전을 이끌기 위한 '2024강릉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20일 시민·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시장,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시의장 등이 시총을 하고 있다.

## 江原日報

2024 04 22 ( )

12



**강릉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강릉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20일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 의장, 김홍규 시장, 김기영 시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4 21 ( )

## 江原日報

## 동원산업 양양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단지 조성사업 차질



강원형 K-연어 비전 선포식이 2023년 11월20일 양양 남대천 수변공원에서 열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 내빈들이 연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양양 대기업이 3,000억원을 투자해 양양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착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원산업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대 10만6,375㎡ 규모 부지에 연어양식과 이를 가공하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강릉에 추진되는 동해안 초광역 연어 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60조원 규모의 연어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해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이라는 대대적인 행사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연어양식단지는 계획대로라면 올 3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3,000억원대로 예정됐던 사업비가 4,000억원대로 치솟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원산업은 노르웨이의 새면에볼루션사와 각각 51%, 49%의 지분을 투자한 만큼 새면에볼루션과 논의가 필요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동해안 초광역 연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사업에 대규모 국비지원을 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1,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경우 양양군이 2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비가 지원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해 사업이 훨씬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착공이 미뤄지며 사업예정지내 양양군 소유의 공유지 7만㎡도 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금융비용도 증가하는 등 사업이 불리해 진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 04 22 ( )

# 강원도민일보

03

## 도의회 새 수장 누구... 의장 후보군 6명 물밑작업 돌입

의장·부의장 등 임기 6월 만료  
 권혁열 현 의장 재도전 표명  
 김기홍·박길선 단일화 밝혀  
 부의장 후보군 국회 3명 압축



권혁열 김기홍 한창수



김기철 박길선 김시성

오는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의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 출마 의사가 있는 의원들의 선수, 지역구 등 쟁점이 분주하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권혁열 도의장과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7명의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49명 중 42명(더불어민주당 6·무소속 1)을 차지하고 있는 11대 의회 특성상, 6월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자체 경선을 치른 뒤 7월 의장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 의장 후보군은 4월 현재 6명으로 추려진다. 권혁열(강릉) 현 의장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홍(원주)·한창수(횡성) 부의장, 김기철(정선) 경제산업위원장, 박길선(원주) 교육위원장,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시성(속초) 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권 의장은 21일 "2년 동안 의회 체계를 갖췄고, 일에 속도를 내려고 하니 임기가 끝난다"며 "주변 권유도 있고 연속적으로 해서 (의회 체계 정립)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김기철 위원장은 "의원 한분 한분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의회를 통합해 도정과 함께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주 지역구 김기홍 부의장과 박길선 위원장은 '단일화' 뜻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박 위원장과 깊은 관계"라며 "원주에서 100% 통합을 할 것"이라고 했고, 박 위원장도 "둘이 하나로 갈 것"

이라고 단일화의지를 전했다.

김시성 의원은 "(출마 의사가) 50대 50"이라며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고, 한창수 부의장 역시 "상황을 살필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뒀다.

의장 선거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와도 맞물리고 있다.

부의장 후보군은 현재 심영근(삼척) 운영위원장,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 박기영(춘천) 안전건설위원장 등 3명으로 추려진다. 셋 모두 직접 출마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선거에 선수, 지역안배 등 유불리 물밑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몫 관철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 배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 다선 의원은 정재웅(춘천) 사회문화위원장, 박윤미(원주) 의원으로 두 의원 모두 3선이다. 이설화 lofi@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04

### 탁구·풋살·플로깅... 도의회 사무처 '1인 1동호회' 활기

#### 화합·업무 효율성 기대 '인기 상승'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1인 1동호회'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 2월부터 사무처 내 동호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전 직원 동호회 등록신청을 받은 가운데 현재 사무처에 등록된 동호회는 총 8개다. 직원 109명이 활동 중이다.

탁구 동호회 '올탁구나' (회장 최병식), 악기 동호회 '더사운드' (회장 유영근), 풋살 동호회 'FC 구르네' (회장 박재석), 플로깅 동호회 'PIGS' (회장 이상훈), 골프 동호회 '골반사수회' (회장 박철용), 자전거 동호회 '의자왕' (회장 박승의), 문화예술 동호회 '문예누리' (회장 강성룡), 걷기 동호회 '워킹화' (회장 서기대) 등이다. 올탁구나는 21일 기준 회원이 32명으로 동호회 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엔 이정춘 미래에셋증권 탁구단 코치를 초빙해 강습을 받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 탁구 동호회 '올탁구나'가 최근 이정춘 미래에셋증권 탁구단 코치를 초빙해 강습을 받았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김종욱 사무처장은 "동호회 활동으로 직원 간 화합도모, 업무 효율성까지 기대된다.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설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지난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심사했다.

## “道, 미활용 군용지 주민 피해 해결 적극 나서야”

### 도의회 기행위 관련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미활용 군용지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강원자치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지원 계획 수립, 환경 개선, 인허가 간소화 등이 담겼다.

류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 축구장 327개에 달하는 규모”라며 “국방개

혁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가 방치돼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군부대 주변지역은 재산권 침해, 개발 지연 등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도 차원에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조례 필요성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군부대와 협의가 쉽지 않고 시·군 재정을 고려할 때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 의원은 “도와 국방부가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왔는데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은 도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짚었고,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 의원은 “지자체가 국방부에 건의해도 협조가 안 된다. 더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도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날 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취득, 이주자 택지 조성을 위한 학곡천 폐천부지 처분 등을 담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는 22일부터 올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한다. 이현정기자

2024 04 21 ( )

## 강원도민일보

# 강원도의회, 미활용 군용지 지원 사업 근거 조례로 명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 군유휴지 활용사업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지난 19일 류인출(원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는 미활용 군용지 등을 위해 국방부와 매각비용 상계처리가 합의된 경우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산업·물류단지·교육시설·의료시설·공공주택·공공청사 등을 조성·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질의답변에서 "조례가 없을 때 도비 보조금 형태였다면, 조례 제정 후에는 지원 기본 계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장물 같은 경우는 (부지)매매 후에 철거하면 개발사업이 늦어진다"며 "국방부 협의가 되면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후에 매각대금을 줄 때 상계처리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행위는 도축기관·시설에서 검사관으로 근무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월 27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1~3월분도 잘 소급해서 지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변경)권, 춘천 동내면 신청사 이주자 택지 폐천부지 처분건도 이날 가결됐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이주자 택지는 오는 6월 착공해 10월 준공한뒤, 12월까지 분양이 이뤄진다. 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주자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 04 21 ( )

## 신아일보

### 류인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정호 기자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

류인출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활용 군용지 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사업 지원 ▷시·군에 대한 지원 ▷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인출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으로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 등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만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2024 04 19 ( )

## 강원도의회 "류인출 의원, '강원도 미활용 군 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 에 관한 조례'

이석균 부장



류인출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류인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활용 군용지 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미활용 군용지 등 활용 사업 지원 ▷시·군에 대한 지원 ▷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인출 의원(사진)은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으로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체·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 등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만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P

lsg@economicpost.co.kr

2024 04 22 ( )

파이낸셜  
뉴스

2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렸다. 도의회는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도의회 제공

##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합리적 운영 근거 마련

### 강원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건 통과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방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됐다.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선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포상금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환수 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

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노무 분야 위원 의무적 위촉 등이 반영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도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관리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04 19 ( )

**CBS**

## 임미선 강원도의원 "세입징수 포상금제 합리화" " 관련조례 개정

강원CBS 박정민 기자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제9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의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등을 담았다.

임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환수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04 21 ( )

## 신아일보

# 임미선 의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김정호 기자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동의 규정의 강화 방안 마련



임미선 의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임미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반영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

2024 04 19 ( )

##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김문숙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의 규정의 강화 방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반영되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숙 기자 riverside2020@daum.net

2024 04 19 ( )

##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최남우 기자



▲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발의

[뉴스쉐어=최남우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 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추어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관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관리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 04 19 ( )

##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고태우 기자



▲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4차 산업 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추어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관리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의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촉발되는 시대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관리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 04 22 ( )

# 강원도민일보

21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염원, 은륵에 신고 달렸다

### 2024 강원 자전거 대행진

본지 주최·특자도 1주년 기념  
도내 4개 시·군 2000명 참여  
경품 행사 풍성·봄 정취 만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지구온난화 극복과 ESG 실천을 통한 환경보호 정책 실현을 위한 '2024 강원자전거대행진'이 21일 춘천 하중도 호텔 부지 일원에서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과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이 출발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정호

'2024 강원자전거대행진'이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20~21일 이틀간 춘천, 강릉, 정선, 철원 등 4개 시·군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강원도민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시·군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4개 시·군 2000여명의 도민이 은륵에 몸을 신고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축하하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지역별로 마련된 행사에서 도민은 순위경쟁에서 벗어나 주말나들이와 함께 풍성한 경품을 챙겨가는 등 일석이조의 기쁨을 만끽했다. 춘천행사에 참여한 장규연(46) 씨는 "경품이 많이 준 비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받게 돼 기쁨이 2배"라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해서 행복을 나누고 내년에도 행사에 참여해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 조상운(74) 씨는 "평소에 자전거를 타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온 높은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이 시원하

게 불어서 더욱 좋았다. 앞으로 대회 규모가 더욱 커져 많은 사람이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중도 호텔 부지 일원에서 열린 춘천대회에는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허영 국회의원,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양숙희 도의원, 김보경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용갑 춘천시의원,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김용주 도체육회 사무처장, 이강균 춘천시 체육회장, 최봉용 도건설교통국장, 고평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선미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

자들을 격려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소양중학교를 다닐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양2교를 넘어 시내를 다녔던 기억이 있다. 오늘 이러한 추억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1주년을 맞아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학생들이 앞으로 등학교에서도 안전하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학교를 등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건강한 신체를 길러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민현 사장은 "자전거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 이곳에 계신 내빈은 춘천,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앞

바퀴다. 뒷바퀴가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열심히 달려 이분들이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춘천을 자전거타기 좋은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등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시장은 "춘성대교 자전거길 연결, 주말 기존 의암댐의 공도교 개방, 배후령 터널 국도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 등 춘천이 전국 최고의 자전거 도시임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시의장은 "의회는 춘천시민

의 건강이 곧 행복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육동한 시장이 말한 공약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영 도의원은 "앞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저 또한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 사항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원주와 속초는 우천으로 연기됐다. 고성(6월)을 비롯한 홍천(9월), 동해,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화천, 양구, 인제, 양양(이상 10월)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심예섭

# “싸고 질 좋은 농산물 사자” 새벽 4시부터 복직

## 르포-30년 맞은 원주시 농업인새벽시장 개장

“신선한 먹거리 제공” 농산물 직거래 활력 기대  
방문객 40만명 유치·매출액 80억원 달성 목표

겨우내 문을 닫았던 원주시 농업인새벽시장이 지난 19일 개장식과 함께 운영 30주년을 맞은 올해 첫 장을 열었다. 1994년부터 운영되면서 농업인들과 시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선사한 농업인새벽시장이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으면서 농업인들의 얼굴에는 올해는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역력했다.

새벽시장에서 20년째 산나물을 팔고 있다는 오명자(여·

75)씨는 “지난해는 유난히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손님이 방문해 모두가 웃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최근 고물가로 인해 쉽게 지갑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에 흡족해했다.

장바구니를 한손 가득 들고 가는 서정순(여·67)씨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곰취를 샀다. 품질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것”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지난 19일 개장한 원주시 농업인새벽시장.

이날 열린 새벽시장 개장식에는 박정하·송기현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박길선·원제용 도의원, 오석근 시농업인새벽시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벽시장은 매일 새벽 4시~오전 9시, 올 12월10일까지 운영되며, 방문객 40만명

유치와 매출액 8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오 회장은 “개장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 주신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구성원 모두가 힘써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원주=김인규기자

## 강원도민일보

### 평창군자봉센터 자원봉사 릴레이 돌입 624명 참여

평창군자원봉사센터의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이 지난 19일 서울대 평창캠퍼스강당에서 심재국군수, 심

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송근직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지역 내 자원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출발식을 가진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에는 지역내 47개 자원봉사단체에서 624명이 참가, 오는 28일까지 집중활동기간을 정해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현태

2024 04 21 ( )

## 江原日報

## [포토뉴스]인제군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사)인제군장애인단체연합회 주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9일 인제체육관에서 최상기인제군수, 이춘만군의장, 엄윤순도의원 등 내빈과 장애인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4 21 ( )

## 江原日報

## [포토뉴스]2024 인제군수기 대회 통합 개회식



'2024년 인제군수기 대회 통합개회식'이 지난 20일 인제체육관에서 최상기군수, 이춘만군의장, 이수인인제교육장, 엄윤순도의원 등 관계자 및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제군수기 대회는 연말까지 18개 종목이 진행된다.

2024 04 21 ( )

# 江原日報

## [포토뉴스] 화천군협회장배 탁구대회



제6회 화천군협회장배 탁구대회가 지난 20일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 4층 탁구장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송호관 군체육회장, 김현용 화천군탁구협회장,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 정종성 화천문화원장, 주종성 화천중.고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4 21 ( )

# 강원도민일보

## 양구 양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이동명



▲ 2024년도 양록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20일 양구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이대근 전 양구군수, 조돈준 군의장, 김왕규 도의원과 장학위원, 장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ldm@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1 ( )

## 제44회 미탄면민 체육대회 열려

신현태



▲ 평창 미탄면체육회(회장 홍현택) 주관 제44회 미탄면민 체육대회가 지난 20일 미탄체육공원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과 각급 기관 단체장, 면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면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신현태

sht9204@kado.net

2024 04 20 ( )

공정한 언론 진실관보도

## 강원종합뉴스

#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 개관식 개최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한복 거점 마련, 지역 한복작가 출품작 20여 점 전시

송은조 기자

한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복 교육·체험·전시를 통해 지역 한복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강릉시 옥천동 구슬샘 문화창고에 마련된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가 19일(목) 공식 개관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 한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복 교육·체험·전시를 통해 지역 한복문화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강릉시 옥천동 구슬샘 문화창고에 마련된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가 19일 공식 개관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송은조 기자)

이날 개관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권성동 국회의원▲김기영 시의장▲김화목 강릉문화원 원장▲심우섭 도의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개관기념 초대전에는 지역 한복 작가들의 출품작인전통한복, 신한복 등 20여 점을 전시하여 한복의 생활화 및 대중화를 위해 지역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다.

▲ 강릉 한복문화 창작소는 2023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모(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에 최종 선정, 1년차 사업비 6억 원 중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옥천동 구슬샘 문화창고(연면적 956.33㎡/지상3층)에 구축했다. (사진=송은조 기자)

1층은 전시관(232.5㎡)과 컨퍼런스룸(153.2㎡), 2층은 한복창작실(94.3㎡)과한복아카이브(40.7㎡), 3층은 한복실습실(91.2㎡)로 구성되어 있다.

금년에는 2년차 사업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창작소 로드맵에 따라 한복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연중 지역 한복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시민 대상 한복제작·전통자수 교육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한복인 간담회, 학술세미나 등 연구 프로그램, 초·중·고 한복문화교육(6월~12월) 및 한복상점(8월), 한복문화주간(10월)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릉한복문화 (사진=송은조 기자)▲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송은조 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14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22일 오후 3시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 江原日報

2024 04 22 ( )

21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

◇홍성기도의원(홍천)은 22일 오후 3시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에 참석.



에 참석.

2024 04 22 ( )

# 강원도민일보

02

## 군납 줄었는데 경쟁입찰까지...접경지 농가 위기감 고조

납품 계약량 1년새 25% 급감  
2025년 이후 수의계약제 폐지  
도 "강원특별법 활용 대책 모색"

	2022년	2023년
합 계	2만 2392t (1181억 7600)	1만 7757t (1045억 7500)
농산물	1만 1777t (390억 2300)	9887t (359억 9000)
축산물	1만 264t (702억 2200)	7626t (616억 5300)
수산물	351t (89억 3100)	224t (69억 3200)

출처/강원특별자치도

지난해 이상 기후 피해를 입은 강원도 내 농가와 어업인들이 군납 농축수산물 납품감소로 이종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은 군납 계약량까지 크게 줄면서 농촌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군납 조합별 농축수산물 계약량은 1만 7757t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2만 2392t) 비교해 1년 새 20.6%

급감했다. 계약금액은 1181억7600원에서 1045억7500만원으로 11.5% 줄었다.

농·축·수협은 농가와 어업인으로부터

터 식자재를 받아 군부대에 공급하는 구조로, 각 조합의 납품량이 줄면 도내 농·축산 농가와 어업인의 소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방부의 군납 수의계약 축소 방침은 도내 농가 소득 감소에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부터 군납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줄였다. 2025년 이후부터는 전면 경쟁입찰제로 전환하기로 해 강원도내 군납 농축수산물 계약과 납품 감소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방침은 국방개혁 2.0정책 적용에 따른 군부대 해체에 따라 접경지역 농가들에게 직

격탄이 되고 있다. 도내 접경지역 군납 조합 10곳의 농축산물 계약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3967t으로, 전년보다 24.9%(4637t) 감소했다. 도내 군납 농축수산물 계약량 중 접경지역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더욱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 지속으로 농가 소득 감소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건비와 농자재 값은 뛰는 반면, 농축수산물의 가격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구입가격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축산물은 7%, 기타농산물은 2.3% 하락했다. 반면 노무비는 7.5% 사료비는 2.3% 올랐다.

올해 상황도 녹록치 않다. 강원도가

도내 군납 농협으로부터 파악한 올해 군급식 농산물 계약 물량은 9986t이다. 지난해 농산물 계약 물량(9987t)과 비슷하지만, 실제 납품되는 농산물은 계약량보다 줄어든 전망이다. 지난해 군급식 농산물 계약량은 9987t, 납품량은 9180t이었다.

도는 접경지역에 한해 국방부 간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강원특별법을 통해 군납 수의계약 축소 문제를 풀어간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6월부터 적용되는 강원특별법에 우선 구매 근거가 담긴 만큼, 국방부 전체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강원도 생산물의 비중을 지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덕형

2024 04 22 ( )

# 江原日報

01

## 실업급여 지급액 月 352억 ... 코로나때보다 많다

도내 2월 기준 사상 최대액 ... 실업자수 3만1,600명 달해  
고용시장 악화속 SOC·서비스업 취업자 1만7천명 '뚝'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며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 2월 지급된 실업급여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보다 많은 352억여원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벤처기업에서 1년간 일했던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됐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상황이 더욱 나빠지자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 퇴직과 사직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경기가 너무 나빠져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180일 이상 근로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현재 신청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강원자치도 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352억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5억6,496만원보다 26억3,518만원(8.09%) 늘었다. 올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급 요건,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등이 변경된 2019년 10월 이후 2월 기준 최다액수다. 특히 코로나19(발) 고용소크로 실업자가 양산됐던 2021년 2월(351억6,811만원)보다도 1억3,200만원이 많았다.

실업급여 지급 건수 역시 지난해 2월 2만3,384건에서 2만4,011건으로 627건(2.68%) 늘었다. 올해 1월 지급한

707억원과 3월 지급액까지 포함하면 올 1분기 총 지급액이 1,000억원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월 강원지역 실업자 수는 3만1,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800명보다 2,800명(9.72%)이나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기·운수·통신·금융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만7,000명 줄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내 실업급여 증가 이유로 경기 불황 장기화 영향과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를 꼽는다.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도내 특성상 관광객 수 감소는 외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2월 관광업 매출이 지난해 2월 보다 3.3% 줄었다"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률이 0.7%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규호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06

## ‘휘발유 1700원 돌파’ 고삐 풀린 기름값에 물가 적신호

강원 l 당 1712원 올해 ‘최고치’  
경유 1579원 3개월 새 5.5% 상승  
고유가 지속 전망 피해 불가피

고유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강원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20일 기준)은 l 당 1712.20원으로 올해 들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중동 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 휘발유값이 l 당 1700원대를 넘어 서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당시의

강원지역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19일(1700.76원) 이후 4개월 연속 1700원대 아래를 유지했으나 지난 17일 1703.26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습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란 공습 보도 이후 시점인 지난 19일 오전 11시 48분 기준 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유 선물은 배럴당 90.43달러로 3.32달러(3.8%) 오르기도 했다. 이에 러-우 전쟁의 고유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당시 러-우 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되자 같은 해 6월 강

원지역 휘발유 가격은 2091.48원으로 전년 동월(1582.56원) 대비 508.92원(32.2%) 올랐다. 자동차용 경유도 지난 1월 23일 l 당 1497.95원까지 내렸으나 지난 20일 1579.85원을 기록하며 3개월여만에 81.9원(5.5%) 올랐다. 또 도내 LPG 가격도 l 당 1000.8원으로 전국 평균(970.00원)보다 30.8원(3.2%) 비싸다. 현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강원지역 화물, 레미

콘 등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종선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현재 강원지역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값 인상, 고유가 등과 함께 건설 불황으로 1년 전과 비교해 물량이 30%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며 “계다가 시멘트값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기름값이 있기에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추가 인상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우진

# 江原日報

2024 04 22 ( )

05

## 檢 “막을수 있었던 사고” vs “주의 의무 위반 없어” 변호인

### ‘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사고’ 교사들 첫 재판

속보=‘현장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본보 지난 17일자 4면 보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운전자와 교사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입교사 A(34)씨와 인솔보조교사 B

(38)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C(7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19일 열었다. 2022년 11월 11일 속초시 노학동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했던 초등생이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교사들은 검은색 옷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고, 검사도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가는 것은 어렵고

### 업무상 과실 혐의 부인 ‘공방’ 증거·증인 채택 놓고도 이견 교육계 재판부에 선처 호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지울 수도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운전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한 사실이 있고, 담입교사는 선두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인솔을 시작하면서 뒤따라 오는 학생들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인솔보조교사는 현장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버스가 주차장이 아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 정차한 상태로 학생들을 하차시킨 것이므로 교사들은 각각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 이탈을 막고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운전기사 측은 모두 인정했고, 교사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교사 측 변호인

은 “인솔교사들의 주의 의무도 없고, 주의 의무 위반도 없다”고 변론 요지를 밝혔다. 증거 및 증인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편 교육계는 거듭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교사단체들은 “교사가 모든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판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리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신하림·강동희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09

## 춘천 대학생 아침밥 소양강쌀로 '든든하게'

시-2개 대학-솔바우 24일 협약  
내달부터 '천원의 아침밥' 공급  
기존 강원대 포함 연 59.4t 소비

춘천지역 대학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소양강쌀이 공급된다. 지역 대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와 한림대, 한국폴리텍대 춘천캠퍼스와 솔바우영농조합법인은 오는 24일 시청에서 '천원의 아침밥 소양강쌀 소

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한림대와 한국폴리텍대 춘천캠퍼스에서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소양강쌀이 공급된다.

지난해 강원대가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지역 내 모든 대학이 소양강쌀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학생 수로 따지면 7만 9200여 명으로 추산된다.

3개 대학에 납품하는 소양강쌀은 연간 59.4t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억 5000만원 상당이다.

춘천시는 소양강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소양강쌀은 매년 다른 지역의 저가미(米)와

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대규모 급식업체나 구내식당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형 소비처를 대상으로 소양강쌀을 계약공급하는 업체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소양강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게 되면서 먹거리 공급 선순환 체계 기반을 다질 수 있고 민선 8기 춘천시가 추진하는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춘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소양강쌀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양강쌀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맡고 있다. 송파구청 직원들과 송파구 통장협의회 등

40여 명이 오는 22일 춘천을 찾는다.

솔바우마을에 도착해 떡메치기를 체험한 후 표고버섯·산마늘 수확 체험에 나선다. 솔바우완전미 가공시설도 견학, 춘천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파악한다. 춘천시와 송파구는 최근 소양강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양강쌀 소비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은향 유통지원팀장은 "소양강쌀에 대한 지역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며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유통해야 하는지를 증명한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소양강쌀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17

##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갯배' 운영 맡는다

이용객 수 감소 경영 어려움  
민간단체 내달 운영권 반환  
시 "위탁협약 체결 운영 만전"

속초시의 명물 '갯배(청호도선)'의 운영권이 내달부터 민간에서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된다.

시는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그동안 갯배를 운영하던 민간단체에서 운영권을 반환, 반환 시기가 5월 1일로 확정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갯배에 대한 위탁을 대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시설은 갯배 2척, 사무실 1곳, 비가림 시설 등이고 위탁 내용은 갯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에 따르면 갯배는 그동안 청호동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해왔지만 이용객수가 지난 2022년 93만 4911명, 2023년 81만 6185명으로 9만 4947명(12.7%) 줄어들었는데 이용료 역시 2022년 3억 1375만 3807원에서 2023년 2억 7807만 6797원으로 3565만 6434원(11.37%) 감소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민간단체는 올해 1월 시에 갯배 위탁관리 계약 해지를 요

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대행이 이관된다.

한국전쟁 당시 아바이마을에 정착한 실항민들이 시내를 왕래하기 위해 만들었던 갯배는 현재 속초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 중에 하나다.

시 관계자는 "갯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대형 위탁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운영에만 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석

# 江原日報

## 사업비 눈덩이 ... 양양 연어양식단지 난항

【양양】대기업이 3,000억원을 투자해 양양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착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원산업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대 10만6,375㎡ 규모 부지에 연어양식과 이를 가공하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예정비용 3천억 → 4천억 올라 지난달 착공 계획 차질 연어 클러스터 사업 포함 국비 지원 요청 ... 가능성 낮아

이 사업은 강릉에 추진되는 동해안 초광역 연어 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60조원 규모의 연어 시장을 공략한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해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이라는 대대적인 행사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연어양식단지는 계획대로라

면 올 3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당초 3,000억원대로 예정됐던 사업비가 4,000억원대로 치솟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원산업은 노르웨이의 새먼 예블루션사와 각각 51%, 49%

의 지분을 투자한 만큼 새먼에 불투선과 논의가 필요해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동해안 초광역 연어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사업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한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1,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경우 양양군이 2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

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비가 지원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해 사업이 훨씬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착공이 미뤄지며 사업예정지 내 양양군 소유의 군유지 7만㎡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사업비가 늘어나면 금융비용도 증가하는 등 사업이 불리해진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 江原日報

## “원더풀 속초” 크루즈 관광객 매료

2,700명 탄 웨스테르담호 올해 첫 속초항 방문 이뤄져 관광지 투어 지역상권 활기 시 통역·수속 지원 등 펼쳐

【속초】“속초 원더풀~.”

올해 첫 크루즈 손님들로 속초지역이 들썩였다.

8만2,000톤급, 전장 285m 규모의 럭셔리 크루즈 웨스테르담호가 지난 19일 속초항에 입항했다. 앞선 지난 14일 승객과 승무원 등 2,700명을 태우고 일본 요코하마를 출항한 웨스테르담호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속초항에 입항했다. 이후 올해로는 첫 속초항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이날 속초항에는 입항 전부터 속초시와 강원특별자치도,



◇8만2,000톤급 럭셔리 크루즈 웨스테르담호가 지난 19일 속초항을 입항해 승객과 승무원 등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아바이마을, 설악산 등 주요 관광지 와 시내 투어를 즐기고 있다.

강원관광재단 등이 마련한 속초 시자놀이 등의 공연을 펼치며 크루즈 관광객들을 환영했다.

1,000여명의 관광객은 선박 검역과 하선 절차를 마친 후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내 지역 특산물 및 체험부스로 구성된 팝업스토어에서 속초시 캐릭터

‘짜니와 래요’ 등과 사진 촬영을 하며 추억을 남겼다.

이후 관광객들은 8대가량의 셔틀버스나 지역 택시 등을 이용해 속초관광수산물시장, 설악산, 아바이마을 등을 둘러보고 닭강정 및 베개커버 등을 구입,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70대 관광객 아이린씨는 “닭강정을 맛보고 실제 구입해 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다”며 “도시 곳곳에서 활기 넘치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시는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관광객 택시 이용 접근성 개선, 관광 안내 및 통역 지원, 원활한 입·출국 수속 지원 등을 펼쳤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크루즈를 지속 유치해 속초항 크루즈산업과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 속에 관광지 속초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웨스테르담호는 이날 밤 10시 가나자와로 출항했다. 김천열기자

# 강원도민일보

## ‘야고 헤트트릭’ 강원FC, 인천 4-1 격파



강원FC가 야고 헤트트릭을 앞세워 인천 유나이티드에 완승을 거뒀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2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인천과 ‘하나는행 K리그1 2024’ 8라운드 홈경기에서 4-1로 이겼다. 이로써 강원은 수원FC와 나란히 승점 12(3승 3무 2패)로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7골(15-8) 앞서 리그 4위에 올랐다. 또 지난 3일 대구FC 전(3-0승)에 이어 2연속 홈경기 완승을 기록했다.

이날 강원은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야고가 시즌 마수같이 골을 넣은 기세를 이어 K리그1 시즌 1호 헤트트릭까지

승점 12, 다득점 앞서 4위 등극

멀티도움 황문기 크로스 빛나

김 지사 직관 7경기 무패 행진

완성했다. 구단 역사상 8번째 헤트트릭이기도 하다. 야고는 전반 19분 경기의 포문을 열었던 슈팅을 골로 연결했다. 후반에서 올라온 로빙패스를 받은 야고는 2명의 수비를 등지고 돌아날카로운 왼발 슈트로 골망 오른쪽을 흔들었다.

강원은 전반 추가시간에만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며 공격력을 폭발했다. 추가시간 1분, 양민혁이 오반석의 패스 미스를 가로채 돌파한 후 박스 안에 있던 야고에게 패스했다. 야고가 또다시

왼발로 왼쪽 골망을 가르면서 멀티골을 작성했다. 2분 뒤 강원 의역습상황, 박스 안에 있던 양민혁의 백힐 패스를 받은 황문기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 앞에 있던 김이석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이어진 후반전, 인천이 교체카드 2장을 사용하며 분위기반전을 노렸지만 야고가 찬물을 끼얹었다. 후반 8분 황문기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이후 망볼 크로스를 올렸고, 야고가 이를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황문기는 이날 멀티도움을 작성했다.

인천은 후반 34분 무고사의 골로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지만 강원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의 고

삐를 늦추지 않아 진땀을 흘렸다.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리기 직전 강원 팬들은 “이겼다”라는 연호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경기를 직관한 뒤 “구단주로 직관한 최근 7경기 연속에서 무패(3승 4무)를 기록하게 됐다”며 “특히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강원 의 공격력은 세계적 수준이었다.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강원은 오는 27일 김천(2위·승점 16)과 원정 경기, 내달 1일 포항(1위·승점 17)과 홈 경기에 나선다. 김 지사는 “상위권에 있는 팀이지만 오늘과 같은 화끈한 경기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심예섭

강원FC의 야고 카리엘로가 2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리그1 8라운드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첫 골을 터뜨리고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유희태

# 江原日報

## 춘천시장기 리틀야구대회 초대 챔프 ‘광명’

용인바론과 결승전 7대0 승리 모범상 김민준·장려상 김준범 전국 78개팀 열흘간 열전 성료

경기도 광명리틀야구단이 제1회 춘천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첫 우승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광명리틀은 21일 춘천 송암리틀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선발투수 정대규와 구원투수 김선준이 각각 3이닝 무실점을 이어던지는 완벽한 마운드에 힘입어 용인바론에 7대0으로 승리했다.

타석에서도 김선준의 투런홈런과 정대규 임태빈 차승민의 멀티히트 등 장단 10안타를 몰아치며 우승팀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용인바론은 정지혁-손주환 계투작전으로 맞섰지만 막강한 상대 타선에 어려움을 겪었고, 타석에서는 유하준 정지혁이 각각 때려낸 좌중 2루타에 만족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모범상(최우수선수상)은 광명리틀의 유격수 김민준에게, 장려상



◇제1회 춘천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결승전이 21일 춘천 송암리틀야구장에서 열려 광명리틀이 용인바론을 7대0으로 꺾고 우승했다. 두 팀 선수들이 시상식 후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김상배 한국리틀야구연맹 사무처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박승선기자

(우수선수상)은 용인바론리틀의 김준범에게 돌아갔다. 또 감독상은 김덕용 광명리틀 감독과 차정국 용인바론리틀 감독에게 함께 수여됐다.

이날 결승전은 육동한 춘천시장의 시구와 함께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육동한 시장은 “많은 훈련과 페어플레이의 결과로 결승까지 오른 두 팀을 축하한다”며 “수도권과 매우 가까운 춘천시가 우리나라 야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시상식에서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는 “대회 준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경기와 시설 관리 등에 힘을 모아주시는 춘천시와 한국리틀야구연맹, 춘천시체육회, 춘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의 관심에 감사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대표인론으로서 이 대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주최로 지난 12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리틀야구단 78개팀 선수단 1,500여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무현·권순찬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 19

## 강릉 급발진 의심 현장실험 주목

-EDR신뢰성 및 진실 규명에다가서는 계기여야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어린이가 사망한 원인의 진실 규명 일환으로 현장 도로에서 재연하는 실험이 진행돼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4월 19일 강릉 회산동에서 이뤄진 이 실험은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EDR) 정보를 토대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현장 도로에서 실제 상황을 재연하는 가속페달 주행 실험을 따른 감정 결과에 대한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날 실험은 2022년 12월 강릉의 급발진 의심 사고의 운전자이자 피해자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제안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가 받아들여면서 성사된 것입니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종에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실시했습니다. 이날 시행된 과학적인 감정 결과는 기존의 국과수 분석과 나란히 재판부에서 비교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에 유례없이 핑음을 내며 순식간에 내달리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재연 검증이 성사된 데는 강릉시민의 높

은 관심과 비슷한 종류의 사고 불안감에 대한 공감대 있었기에 원활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실험 차량의 운전자로 전문면허를 보유한 강릉시민이 있었으며,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차종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시민 덕분이었습니다. 당일 도로 통제는 시와 경찰은 물론 자율방범대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왔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현행 법인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 곧 소비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탓에 준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점입니다. 원고 당사자는 물론 시민 사이에서 안타까움이 속출한 가운데 법 개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수십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현장 재연 실험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필요성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현행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보완 개선 여론을 촉진하고 있음을 국회와 기업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4 22 ( )

/ 19

## 지역상품권 사용자 중심 운용을

-연 매출 30억 이하 업체로 제한, 농업인 등 불편

내달이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지 1년이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발행되고 있는 상품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제한으로도 내 지역상품권 판매 금액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선 상품권이 제구실을 못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사용자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변화해야 합니다.

도내 시군에서 지역 상품권 판매 감소 현상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의 경우 지난해 3월 한달 47억원이 판매됐으나, 올해 3월의 경우에는 절반 수준인 2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사랑상품권의 경우에도 올해 3월 90억원이 결제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1억원보다 25% 감소했으며, 정선아리랑상품권은 12억원에서 6억원으로, 횡성사랑상품권은 24억원에서 19억원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 판매 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평소 주유소나 농협마트에서 많이 사용했었는데, 1년 전부터 활용을 못해 상

품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잘 쓰고 있던 시민들이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농업인들의 경우 영농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상품권으로 비료와 농자재를 농협마트에서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다양한 자재를 보유한 농협자재센터에서 지역 상품권이 운영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화폐처럼 편하게 이용되는 지불 수단입니다. 소규모 매장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출 규모를 제한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편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상품권 자체가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영세 매장의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상품권의 사용 주체는 주민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통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지역 경기가 더욱 위축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는 지역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조기에 개선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江原日報

2024 04 22 ( )

/ 19

## 道 농가 인구 14만명 붕괴, 커지는 농촌 소멸 위기

도내 농가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1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도내 농가 인구 중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도내 농가 인구는 13만9,699명으로 전년도 대비 4,734명 감소했다. 역대 최소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2022년 7만128명에서 7만1,868명으로 1,740명 늘었다. 전체 비중도 51.4%를 차지하며 사상 최초로 전체 농가 인구의 반을 넘었다. 반면

20~30대 청년 농가 인구는 2022년 1만336명에서 9,454명으로 882명 줄었다. 또 농업 수익의 악화로 도내 농가의 절반은 농업 이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겸업농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겸업농가 비율은 54.3%로 전국 평균(43.6%)보다 월등히 높았다. 농업 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연간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 비율은 67.2%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늘었다.

농촌이 위태롭다. 교통·의료·교육·복지 등의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사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든 탓이다. 우선 아이를 출산하기가 힘들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하는 형편이다. 아이를 낳아도 넘여야 할 산이 많다. 보육시설과 학교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농사에 전념할 수 없고 자녀가 성장

할수록 교육 걱정애 이농을 고민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니 농촌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신생아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농가 소득(2018년 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4.9%에 불과하다.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심각해 2019년 현재 46.6%(국내 전체 14.9%)에 달한다. 농업·농촌을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 인력은 물론 당장 영농현

장에서 일할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면 농촌 소멸 시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이 무너지지 않도록

2023년 13만9,699명으로 역대 최소

교통·의료·교육·복지·소득 등 열악해

균형발전 위한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진용을 갖춘 22대 국회가 곧 출범한다. 여야도 합심해 쓰러져 가는 농업·농촌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다. 농촌이 붕괴되면 지방 소멸도 앞당겨진다. 지방 소멸이 확산되면 중앙과의 격차 악화로 국가 균형발전도 어렵다.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올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다. 농촌이 무너지면 식량 주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농촌의 고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 江原日報

2024 04 22 ( )

/ 19

## 반복되는 선거구 파행, 지금이 개선할 적기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늘 논란거리가 돼 왔다. 기존 선거구의 인구 증감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분구(分區)를 통해 선거구를 신설하고, 인구가 상당히 감소한 곳은 다른 선거구로 통폐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3대1 이상이면 국민의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서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매번 선거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지각' 처리되는 선거구 획정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1년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손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있어 멀리 보고 사심 없이 선거구를 정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이 같은 늦장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선거구가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여야 정당이 강원특별자치도 9석을 공공연히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 판단이 주저않

게 했다. 인구 편차 상한선을 넘은 춘천을 분구하며 인근 군지역을 갖다 붙인 기형적인 선거구가 등장했다. 즉, 시·군지역이 뒤흔들렸다. 속초·고성·양양에 인제군을 포함시키고 철원·화천·양구는 춘천 강북지역과 합쳤다. 홍천은 선거구 획정안이 거론될 때마다 이곳저곳에 꺾맞춰지는 모욕적인 현상을 겪은 끝에 영월·횡성·평창과 한 선거구로 묶였다. 부당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총선 때는 필히 바로잡아야 할 과제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인구수에만 따라 선거구를 정하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 가뜩이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불리한 농어촌지역은 더 힘겨워진다. 정치, 정책에서 배려와 타협이 요구되듯 선거구 획정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것은 문제다. 선거제·개혁법안을 다루면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인구에서 3%밖에 안 된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방안에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맞물려야 한다. 도는 물론 지역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